

EDU-15 한눈에 보기

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내부 민원부터 조정·소송까지 알맞은 경로를 선택한다.

왜 배우나요?

분쟁에서는 억울함의 크기보다 사실·증거·요구·기한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

필수개념

- 민원: 금융회사 등에 사실 확인과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
- 분쟁조정: 중립 기관이 사실과 법리를 검토해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.
- 소송: 법원이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.
- 쟁점: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핵심 사실이나 법률문제입니다.
- 증거: 주장을 뒷받침하고 당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자료입니다.

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이해하기

- 금융분쟁 해결은 화가 난 이유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이 달랐는지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.
- 민원·분쟁조정·소송은 담당 기관과 절차, 결과의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.
- 계약서·거래내역·설명자료·연락기록을 원본대로 보존하고 원하는 해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법원 서류나 기한이 있는 통지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즉시 확인합니다.

핵심 4문장

- 억울함이 커도 사건의 시간·계약·설명·거래·손해를 분리해야 상대가 답할 수 있다.
- 녹취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. 계약서·설명서·접속·인증·거래·후속 대응을 묶는다.
-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은 비용과 절차 장점이 있지만 강제력·중단되는 기간·수락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.
- 시효·이의기간·제출기한은 사건마다 달라 교육자료의 일반 숫자로 단정하지 않고 즉시 공식 확인한다.

새로 확인할 생활 주제

- 기한은 분쟁 이름이 아니라 받은 서류와 절차에서 확인합니다: 원본을 보존한 뒤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적용 절차와 기한을 문의합니다.

판단 5단계

- 사건 직후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사본으로 작업한다.
- 시간순 사실표에 누가·언제·무엇을·어떻게 했는지 적는다.
- 각 주장 옆에 계약·설명·거래·손해 증거를 붙인다.
- 원하는 결과를 취소·환급·재산정·정정·답변 등으로 구체화한다.

- 내부 민원·조정·법원 중 현재 단계와 기한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.

도움 요청

추가 손실을 멈추고 사실·증거·요구·기한을 적어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.

내용 기준 2026-08-24 · 다음 점검 2026-11-20 · 2026년 8월 제1판